

## 배움의 기쁨! - 사이몬 이야기

드디어 만났습니다. 번역자 속테스가 사이몬, 마가렛과 함께 알로타우로 나왔습니다. 저희보다 이틀 일찍 알로타우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번 저희가 알로타우 센터에서 이제나저제나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지난 6월 처음으로 서로 떨어져서 사역해 보니 이렇게 만나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편지에서는 '사이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이몬은 올해 55세로, 카니누와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모여 사는 '기파나우따' 마을의 리더입니다. 또한 전체 카니누와 공동체에서, 그리고 카뮌야바 교회에서도 다른 리더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파나우따 마을은 카니누와 사람들이 주로 사는 '시베시베' 마을에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번역자 대부분이 시베시베 마을에 살고 있기에 번역팀 모임 장소도 시베시베 마을에 있지요. 따라서 사이몬은 다른 사람보다 늘 한 시간 먼저 집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팀 모임에 종종 늦게 오기도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그의 모습을 보면 번역팀도 그저 '와 줘서 고맙다'며 반갑게 맞아 줍니다.

작은 마을 리더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참석 못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날은 꼭 번역 사역에 참석하려고 한 시간을 걸어오는 성실한 형제입니다. 공식적인 번역 훈련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훈련받은 번역자 속테스, 잭, 레비를 도우며 곁에서 함께 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조금씩 번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책에 볼펜으로 적어 가며 고치고 또 고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번에 알로타우에 와서 처음으로 노트북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이몬 인생 처음으로 마우스도 잡아 보고, 타자 연습도 하고, 번역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 사용법에, '스카이프' 를 통해 화상통화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노안으로 인해 돋보기를 써야 하고, 발농사 짓느라 투박해진 손은 마우스를 잡기에도, 타자 연습을 하기에다 부자연스럽고, 처음 접한 노트북은 뭐 그리 알아야 할 것이 많은지... 짧은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만, 매일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이제 나도 안다'라는 기쁨! "많이 힘들지요?"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이제는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켜고, 마우스를 잡고, USB 드라이브를 꽂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사이몬이 이번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여 앞으로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사이몬을 응원해 주세요.

### 기도 부탁드립니다.

- 번역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요한복음 8~11장 말씀을 점검할 때 번역된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있도록,
-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마을 번역팀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 지난번에 이어 '마가복음 2' 성경 공부 교재를 인쇄해서 보냈는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잘 활용이 되도록,
- 아이들 이야기책, 요나 이야기책을 통해 카니누와 사람들이 카니누와 언어를 읽고 쓰는 데 도움이 되도록,
- 10월 누가복음 자문위원 점검에 필요한 뺏샷과 먹을거리를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 누가복음 자문위원인 존 브루너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9월 아들 결혼식에 참가한 후 파푸아뉴기니로 돌아오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룻기 2:4, 현대인의성경)

매일 아침 속테스, 사이몬, 마가렛과 함께 '룻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카니누와 번역팀을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의 말씀은 보아스와 일꾼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입니다. 동역자님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축복의 인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Yeisu nukusi' 예수 누꾸시!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카니누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인사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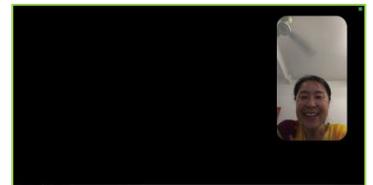
2021년 8월 21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난생처음 마우스를 만져보는 사이몬



파라텍스트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보고



스카이프 화상통화 연습도 하고



다 함께 마을에 가져갈 책자를 만듭니다

